

『구운몽』으로 본 서사와 미디어의 문제

조선 후기 대중독서 확산의 한 사례

The Problem of the Narrative and Media in <Gyunmong>

: The Process of Enlargement of Popular Read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주형예*

국문요약 이 글은 『구운몽』의 서사적 표지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조선 후기 독서환경에서 독자범위가 확장되면서 오락적 소설 독서의 장이 변화하는 한 사례를 보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었던 호사자들의 독서목록에는 몽유록, 야담, 중국소설, 전기소설 등이 있었다. 그들은 독자이며 작가였고, 때로는 출판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구운몽』의 작가는 전기소설 독서지형에서 유희적인 서술자를 내세워 서사의 오락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구운몽』 독자들은 작품에 대한 소문을 가벼운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를 위하여’라는 창작과 독서의 명분을 내세워 독자의 젠더적 경계를 넘어갔다. 소문과 명분은 독자를 넓히는 일차적 미디어 효과를 낳았다.

이중 언어와 판각, 상업 유통의 미디어 맥락에 놓인 『구운몽』은 서사의 생략과 부연의 방법으로 통속소설 장의 평균적 감수성을 반영하였다. 한문본은 일찌감치 판각이 되어 표준화된 서사를 갖게 되는데, 판각본의 서사는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준 텍스트였다. 한글본 『구운몽』은 세책과 방각의 상업유통 매체와 결합하여 시정 독자들의 상식을 따라 서사에 부분적 변화를 주었다. 편집자들이 택한 서사적 변형의 범위나 문장 표현의 선택이 매체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편집 기준은 시정의 상식이었다. 편집자들은 통속적 감수성에 맞추면서 영리적 기대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핵심어 작가, 독자, 편집자, 소문, 명분, 이중 문자, 세책, 출판, 호사자, 서사, 통속

- 차례**
1. 서론
 2. 오락적 독서집단
 3. 작가의 유희적 서술시선
 4. 대중적 확산
 5. 결론

1. 서론

『구운몽』은 성진과 팔선녀가 꿈속에서 양소유와 팔부인으로 살다가 꿈을 깨는 환몽의 이야기이며 조선 후기 소설책의 제명(題名)이다. 『구운몽』은 서사 연구¹, 작가와 독자에 대한 연구², 필사나 판본 등 텍스트와 유통 연

1 김병국, 「구운몽의 연구사」,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5, 351~378쪽; 장효현, 「구운몽의 주제와 그 수용사에 대한 연구」,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강상순, 「구운몽의 상상적 형식과 욕망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0; 이주영, 「구운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문학연구』, 국문학회, 2003, 37~58쪽에서 대략적 연구사를 살펴볼 수 있다.

2 양승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

구³ 등으로 분야를 달리하며 연구 목표에 따라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자리에서 다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운몽』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구운몽』의 창작과 이본 생산에 관여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통시적으로 논한 연구는 소략하다.⁴ 저작권이 없는 조선 사회에서 서사의 변모는 그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논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 된다. 『구운몽』은 한문 식자층 사이에서 화제에 오른 드문 소설 작품이면서 한문으로도 판각되었고 한글 통속소설의 유통 방식으로 유전(遺傳)되면서 이본 간 서사적 차이를 만들었다. 『구운몽』의 통속적 서사와 긴 유통 기간, 매체를 달리하며 독서집단을 만났던 특이성에 주목하여 『구운몽』을 조선 후기 소설사 삼백 여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표지 작품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논의를 통해 작가와 독자, 편집자가 서사에 관여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그에 관여하는 소문, 명분, 재해석, 번역, 세책, 필사, 판각 등의 문화적 행위와 미디어의 성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소설을 공유하는 미디어의 기술적 성격과 확산의 방식에 따라 독자 집단이 확장되는 현상을 보여 소설의 장이 변화하는 사례

를 드러내고자 한다.⁵

2. 오락적 독서집단

2.1. 호사자의 독서 취향

‘고전소설’은 현대의 장르 개념으로 과거의 이야기들에 경계를 부여한 것이다.⁶ 그러므로 고전소설 연구는 당대의 경제적 규모와 매체의 발달, 신분과 젠더 언어문자의 문제 등이 현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고전 ‘소설’ 장르로 논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의 오락적 독서가 등장하면서 현대의 소설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된 시점에서 나타났다.

『구운몽』이 창작·향유되었던 시기는 도시 오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상품 소비를 통해 개인적 취향을 추구하는 현상이 배경에 있었고⁷ 이 시기의 오락적 독서는 신분제 사회의 균열을 일으키는 변수를 제공했다.⁸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기록에서 ‘호사자’라는 통속적이며 유행에 따른 관심사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례 중 글을 읽고 비평하고 창작하는 경우를 검토했다. 신분과 젠더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대중독자의 기원을 호사자에

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59~289쪽; 신재홍, 「어머니 독자와 김만중의 소설 창작」,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17~148쪽; 정길수, 「구운몽의 독자는 누구인가」,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57~82쪽; 김수영, 「영조(英祖)의 소설 애호와 그 의의」, 『인문논총』 73(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6, 10~134쪽.

3 원전 연구로는 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 일지사, 1977; D. 부세, 「구운몽 저작언어 변증」, 『한국학보』 18, 일지사, 1992, 31~61쪽; 지연숙, 「구운몽의 텍스트: 서울대본·노존B본·노존A본의 위상에 대해」,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서, 2003, 281~319쪽; 김동욱, 「구운몽 원본 탐색의 가능성 고찰」,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10~124쪽; 정길수, 「구운몽 정본 구성의 방법과 실제」,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88~212쪽; 이운석, 「구운몽의 작자와 원본 재론」, 『동방학지』 19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0, 357~393쪽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4 17세기 소설로서 논의한 연구들이 가장 이에 근접해 있다. 전기소설이나 중국소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도 이 논문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17세기라는 시간적 지표가 작품의 생산 연대와 이야기 분석의 배경으로서만 의미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역사성’이 소설에 관여하는 것은 ‘내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와 독자와 유통에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5 『구운몽』에 대해서 연구사는 주제나 인물, 텍스트 연구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구운몽』은 각기 다른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사회와 관계를 맺었다. 이는 독자의 범주를 달리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대중 독서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미디어의 개념은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김상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에 근거하였다. 미디어를 인간 감각의 확장으로 보았고, ‘인간 관계와 행위’의 규모와 형태를 형성하고 제한한다고 보았다(31~57쪽).

6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소설을 ‘이야기책’(3쪽)으로 정의하면서 광범위하게 모든 조선시대 이야기를 포함한 이래, 여전히 각기 다른 기준으로 고전소설을 정의해 왔다(한국고소설학회편저, 『고소설의 개념』, 『한국고소설강의』, 돌베개, 2019, 13~20쪽 참고).

7 강명관, 『조선 후기 경화세족과 동서서화 취미』, 『동양한문학연구』 12, 동양한문학회, 1998, 5~38쪽. 이래로 조선 후기 서울의 여흥인이나 도시 유희, 벽(癖)에 대한 논의가 뒤를 이었다.

8 루시앵 페브르와 앙리 장 마르탱은 『책의 탄생』(강주현 외 역, 돌베개, 2014)에서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자국어로 쓰인 출판물의 발달을 꾀했던 인쇄술이 자국어의 발달까지 꾀하며’ 라틴어를 사장시켰고 이것이 대중문화의 시작이기는 했으나 파장이 컸다고 정확히 짚었다(558). 고전소설에서 대중문화의 시작과 파급력을 보고자 한다.

게서 발견하는 것이 지나친 부회(附會)는 아닐 것이다.⁹

구우(瞿佑)의 <전등신화서(剪燈新話序)>는 이렇게 시작한다.

내 이미 **고금의 괴이하고 기이한 일을 모아** 『전등록』이라 했으니 무릇 20권이다. **호사자란 매번 오즈음 일을 서로 듣기 때문에, 멀게는 백 년을 채 벗어나지 못하고 가까이는 겨우 수년에 불과하다.** 마음속에 접고 쌓은 것이 **날마다 새롭고 성해도, 습속이나 기운이 나약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이리하여 붓을 잡고 글을 지어 기록하면, **그 일이 모두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랍거나, 괴이한 것이 되지만, 애석한 것은 글 쓰는 방법이 거칠고 시문의 밀천이 천협해,** 눈을 높이고 귀를 넓히는 논의로 이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미 완성되면, 또 가만히 생각하기를 **말이 괴이함에 걸린다거나, 음란함에 가깝다**고 여기고는 서사에 넣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는다.¹⁰ (余既編輯古今怪奇之事,以為『剪燈錄』,凡四十卷矣.好事者每以近事相聞,遠不出百年,近止在數載,襲積於中,日新月盛,習氣所溺,欲罷不能,乃援筆為文以記之.其事皆可喜可悲,加驚可怪者.所惜筆路荒蕪,詞源淺狹,無曷目鴻耳之論以發揚之爾.既成,又自以為涉於語怪,近於誨淫,藏之書笥,不欲傳出.) (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함)

전기소설을 창작하는 사람들은 괴이하고 기이한 것을 쓰고 ‘기쁘고 슬프고 놀라’운 감정을 글로 쓴다. 이는 정확히 자극적이고 통속적인 이야기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 사대부들의 학문 연마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창작의 가치를 경전의 기준에서 찾기 때문에 ‘서사(書筭)에 넣어두고 꺼내보려’하지 않는 부끄러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당시 전기소설 창작자들의 상투적 변(辯)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스스로 ‘호사자(好事者)’로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사대부들은 즐거움을 위해 야담, 풍유록, 전기소설, 중국소설 등을 함께 독서 목록에 넣고 오락적 독서를 즐기고 있었다.¹¹ 이들 사대부 독자들을 ‘소설독자’로 규정할 수 없지만 오락적 읽을거리를 두루두루 읽는 호사자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호사자에 대한 기록에는 그들이 글을 읽고 비평하고 창작하고 출판까지 감행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설명을 위해 해당 사례를 몇 가지 추려 제시하겠다.

①

호사자들이 당대에 이 시를 다투어 전파하여, 연민과 감상을 기술한 글들이 여러 문인의 문집 속에 여기저기 보인다. (『명고전집』 1권)

②

만약 그렇게 자신이 있고 그 출처가 적실한 근거가 있다면 왜 『박물지(博物志)』를 쓴 장무선(張茂先)이나, 『습유기(拾遺記)』를 쓴 왕자년(王子年)처럼 저서를 하나 내어 후세 **호사자(好事者)들에게 물려 주지 않으십니까.** (『순암선생문집』 5권)

③

‘삼도부(三都賦)’는 진(晉)나라의 문장가인 좌사(左思)가 10년 동안 고심하여 구상한 끝에 완성했다는 <촉도부(蜀都賦)>·<오도부(吳都賦)>·<위도부(魏都賦)>를 가리키는데, 이 문장이 천하에 명문(名文)으로 알려져서 **호사자들이 그것을 서로 다투어 전사(傳寫)하는 바람에 낙양(洛陽)의 종잇값이 폭등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곧 차천로가 지은 부가 삼도부처럼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지봉집』 4권)

9 대중은 대중매체에 매개된 상품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mass culture, popular culture의 의미로 쓰인다.

10 구우, 정용수 역, 『전등신화』, 지식만드는지식, 2012, 3쪽 참조. 원문은 목판본 『剪燈新話句解』 규장각본(1559).

11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전등신화』, 『금오신화』 등의 전기소설, 『용재수필』, 『필원잡기』, 『청파극담』 등 많은 야담집 목록들과 『삼국지』, 『풍유록』, 『수성지』, 『태평광기』 등 다양한 독서 목록들이 나타난다. 여타 사대부들의 잡록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태학사, 2001, 192~199참조).

④

그대의 서고(書庫)에는 필시 그 책이 있지 않을까 하네. 바
라건대 **나에게 빌려 주어 이내 호사가가 책을 완성함으로써 동
지들이 참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
는가.**(『한강집 속집』 2권)

⑤

동월이 찬한 『조선부』와 비교해 보면 모두 『조선부』 가운
데 나오는 동월의 자주(自註)와 같은바, 대개 **호사자(好事者)가
초출(擧出)해서** 별도로 간행하면서 거짓 이름을 붙인 것일 뿐,
동월이 이 책을 또다시 지은 것은 아니다.(『해동역사』 45권)¹²

호사자들은 ① 글을 읽어 외어 전파하는 행위를 하며,
② 베껴 써서 전하기도 한다. ③ 저자들은 호사자들을 독
자로 의식하며 글을 쓰고, ④ 새로운 글을 창작하는 작가
들이 스스로 호사자라 칭하기도 한다. 호사자가 편집 출판
의 적극적 생산 행위에 참여하고 있음을 ⑤의 용례는 알려
준다. 이들의 문화 행위는 경전주해나 공식적 문서 같은
학문적·실용적 영역이 아닌 시와 이야기의 한정된 맥락
에서 나타난다. 호사자는 오락적 독서의 장에서 글을 읽고
전해서 문예물들을 소통시키고 직접 창작하거나 출판까
지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음 자료는 호사자가 지은 책에 대해 호사자들이 이
야기 나누는 현장을 보여준다.

기묘년(1579)에 내가 공적인 일로 호서 내포 지역을 순행
하여 보령에 이르렀을 때, 사문 김황 어른이 현감으로 있었는
데, 곧 부친의 친구분이였다. 조용히 담화를 나누다가 <최문
창전>을 꺼내 보여주셨다. 누가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
나 금돼지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자못 상세하게 다 갖추어
져 있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혹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겼다.
후에 『당사』를 열람하다가 구양순이 원숭이와 매우 유사하여

당시 사람들이 <백원전>을 지어 비방이 어버이에게까지 미
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한 뒤에야 **금돼지 이야기가 호사자
들에게서 나왔으며 <백원전>을 호빈하였음이 틀림없음을 알게
되었다.**(고상언, 『효빈잡기』)¹³

역사와 설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전기소설 <최문창전>
이 형성되었다는 추론을 하면서 중국 전기소설의 영향이
라고 생각하게 된 단서까지 서술하여 호사자 집단에서 비
평적 사유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
다. 그들은 처음 접한 전기소설을 스토리만 읽는 것이 아
니라 모티프의 상호텍스트성도 이해하고 있었고, 작품의
장르적 연원까지 짚어보고 있다. 독자로서의 호사자는 읽
은 것의 문화적 맥락을 찾아내는 독서를 했음을 알 수 있
다. ‘재미있다’ ‘재미없다’의 인상비평이 아니라 창작의 기
원과 장르의 연원을 찾아내는 문화교양을 기반으로 한 비
평적 독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2.2. 소문과 명분

즐거움을 위한 이야기 창작과 독서가 이루어지고 이를
즐기는 독서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운몽』은 흥미
로운 ‘소문’의 대상이 된다. 영조가 『구운몽』을 언급한 『승
정원일기』의 기사 세 건은¹⁴ 영조가 소설 애호가였음을 알
려준다.¹⁵

상이 이르기를, “구운몽은 누가 지었는가?” 명리가 아뢰
기를, “김만중이 지은 것입니다.”…“나는 고 정승 이의현이
지은 줄로 알았소.”(上曰, 九雲夢, 誰之作耶? 明履曰, 金萬重所作矣…

13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태학사, 2001, 206쪽.

14 영조 27년(1751) 3월 15일. 영조 37년(1761) 7월 11일. 영조 39년(1763) 12월 25일.

15 양승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59~289쪽; 김수영, 「영조(英祖)의 소설 애호와 그 의의」, 『인문논총』 73(1), 서울대인문학연구원, 2016, 107~134쪽. 김수영은 영조가 연의소설·문언소설·신마소설·인정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중국소설을 읽었다는 점을 짚었다.

上曰, 然乎? 予則以故相李宜顯所作知之矣 영조 27년 3월 15일)

상이 이르기를, “고 중신 김진규가 노친을 위해 구운몽을 지었다고 했던가?” 홍봉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上曰, 故重臣金鎮圭, 爲老親作九雲夢云耶? 洪鳳漢曰, 然矣. 上曰, 善文矣. 영조 37년 7월 11일)

상이 이르기를, “추판의 중제가 지은 구운몽은 매우 좋소.” 봉한이 아뢰기를, “남정기도 그가 지은 것입니다.”(上曰, 秋判從弟所作九雲夢, 極好矣. 鳳漢曰, 南征記, 亦其所作矣. 영조 39년 12월 25일)¹⁶

『승정원일기』 기록에서 영조는 『구운몽』을 화제에 올렸다. 『구운몽』의 작가가 누군가에 대한 가벼운 대화이다. 십여 년을 두고 같은 작품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거듭 화제에 올리지만 굳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조는 호사자인가?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호사자’로 범주화하기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호사자’는 특정 집단을 영구히 정의하는 특성이 아니라 정론적 독서와 공식적 담화가 아닌 재미와 가벼운 호기심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유동적으로 소속되는 개념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잡록을 저술한 사대부들이 때때로 호사자에 포함되듯이 영조 또한 위의 대화를 나눌 때에는 호사자로서 『구운몽』을 화제에 올려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디어가 된다.

『구운몽』과 관련된 소문 중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를 위해’라는 명분이다.

부군께서 귀양지에 도착한 다음 윤부인의 생신을 맞아 시를 지었다. “멀리 어머니께서 아들 생각에 눈물 흘릴 것을 생각하니/반은 사별이요, 반은 생이별이라.” 그리고 글을 지어 보내서 소일거리를 삼으시게 하였다. 그 의미는 일체 부귀영화가 모두 환몽이라는 것이니, 그 뜻을 넓히고 슬픔을 위로하

고자 함이었다.¹⁷

〈졸수재행장(拙修齋行狀)〉에서도 비슷한 서술을 볼 수 있는데¹⁸ 유희적 읽을거리로서 소설을 창작하는 것에 대한 변명 혹은 명분으로 보인다. 이름이 있는 필자는 소설을 돋보이게 하는 명분이었고 윤리적 동기는 작품에 품격을 주고 후광을 더해주었다.¹⁹ 사실 『구운몽』의 내용과 ‘어머니를 위해’라는 명분은 잘 들어맞지 않는 듯하지만, ‘소일거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유희적 독서를 위한 글임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전기소설은 독자 집단이 한정되어 있지만 ‘어머니’라는 기존 독자의 범주를 벗어난 집단을 대상으로 삼은 『구운몽』 창작은 작가의 서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기소설의 전형적 서사를 변주하면서 공략한 대상 독자는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작가의 ‘의도성’을 드러냈다. 잡록과 중국소설, 몽유록, 전기소설을 읽고 시를 유행하게 하는 호사자들과는 다른, 기존 집단을 넘어선 다른 부류의 독자가 탄생했음을 암시하는 표지이며 이것이 ‘작가’의 서사 구성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한다.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하는 호사자들은 오락적 독서를 하고 있었고 이야기의 공유와 비평에 적극적이었지만 독자 집단의 동질성을 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선과 명분이 필요했다.

17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 태학사, 2001, 232~233쪽.

18 매양 소설 듣기를 좋아하여 졸음을 그치고 번민을 쫓는 자료로 삼았고, 항상 그것을 계속하지 못할까 걱정이었다. 부군이 매양 남의 집에 못 본 책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힘을 다해 구하여 얻은 다음에야 그쳤다. 또한 자신이 옛이야기를 부연하여 여러 권의 책을 엮어내 바치기도 하였다(위의 책, 234쪽).

19 신재홍은 어머니 독자는 ‘소설책을 읽고, 베끼고, 나누어 주고, 빌려주거나 빌려 오고, 수선을 맡겨 보존’하는 일을 했다고(128) 보았다. 신재홍, 「어머니 독자와 김만중의 소설 창작」,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17~148쪽. 여성 독자층의 필사본 소설 읽기와 공유도 별도의 지면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3. 작가의 유희적 서술시선

17세기까지 독서물로 향유되었던 전기소설들의 자장에 놓여 있으면서도 『구운몽』이 모티프에 대한 재해석과 재배치를 택한 동기는 전기소설 독서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창작 욕구로 보인다. 호사자 집단은 공동 독서목록을 갖거나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당대적 문화집단으로 나타났다. 한문 문자생활을 하는 집단에서 오락적 독서의 문화를 공유했던 호사자 독자들과의 저변에서 당대 유행했던 몽유록의 지향성이나 전기소설의 통과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구운몽』 작가의 서사적 성취일 것이다. 호사자 집단은 문필가들이기 때문에 독서 비평에서 창작으로 순환이 가능한 문화집단이었는 데, 그것이 이후 통속소설의 장에 나타난 작가들과 다른 점이 었다.²⁰

‘작가’는 자기 문장에 대해 권위 있는 근거를 세우기보다 이야기 독자로서의 유희를 즐기고 있었고 자신의 창작 행위가 유희적 독서의 결과임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희적 의도는 전기소설 모티프의 변주에서 매우 명확하게 보인다. 간단히 비교해 보겠다.

『태평통재』 소재 「최치원」에는 귀신과 만나 술잔을 나누고 시를 주고받고 밤을 함께 보냈던 전기가 실려 있고 헤어짐의 서술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날 아침 치원은 무덤가로 가서 쓸쓸히 거닐면서 읊조렸다. 탄식함이 더욱 심해져 긴 시를 지어 자신을 위로하였다. (明日, 致遠歸塚邊, 彷徨嘯咏, 感歎尤甚, 作長歌自慰)²¹

귀신과 치원의 만남이 끝난 뒤 그들에게는 회한이 남

20 한글소설로 한정해서 볼 때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장르의 고착과 작품의 복제가 두드러졌다. 이는 소설시장의 새로움은 새로운 매체뿐만 아니라 작가의 이야기 창안, 강렬한 현실 경험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19세기 세책본 방각본 상업 유통 시장에서 결여되어 있었던 조건을 짐작하게 해 준다.

21 이대형 편역, 「최치원」, 『수이전』, 소명출판, 2013, 36~73쪽.

았다. 반면, 가춘운과 양소유의 만남은 동기부터 다르다.

쇼녀의 뜻의는 춘운의 몸을 비러 쇼녀의 설치를 하고져 하니 십삼행렬 일일이 흐라 흐쇼서(서울대본 2권 8a)²²

곧 정경패가 설치(雪恥)하기 위해 가춘운을 귀신으로 꾸며 양소유를 만나게 했고, 양소유가 속는 것은 정경패의 복수이지만 양소유에게는 풍류였고, 독자에게는 오락적 장면이었다. 가춘운과 헤어진 뒤 ‘싱은 분하고 스텸 흐여 침식을 다 폐’하였으나 정사도 집안이 모의 작당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소유는 ‘대쇼호’고 이날 모든 사람이 ‘크게 즐겨 종일토록 취’하였다. 등장인물 누구도 심각하지 않다. 전기에서 보여주었던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사유와 회한은 없고 놀이로 전유(專有, appropriation)한 해프닝이 있을 뿐이다.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가 맺는 진지한 일대일 관계는 주요한 서사적 탐구 대상이었다. 신분이나 생사 위기, 전쟁 등 갈등 조건을 배경으로 진지한 만남과 이별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고독한 인간의 역정은 애정전기 장르를 특징하는 필수 요소였다.²³ 그런데 『구운몽』은 이들 관계를 일대 다의 경험으로 변주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모티프들을 유희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양가 규수, 기녀, 정승의 딸, 공주, 시녀, 자객, 용녀 등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여성들과 우연히 또는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가벼운 희롱으로, 혹은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을 구성하면서 그 시기 남녀 관계에 대한 상상을 한 이야기에 모았다. 양소유

22 서울대본 4권 4책, 규장각 古3350-91-v.1-4.

23 박희병이 전기소설의 주인공을 고독한 내면,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 천명한 이래, 전기적 인간의 소심한 면모와 나약한 인간상에 주목하였다. 전기소설의 독자는 사대부 집단과 동질적 감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참조). 최근 김경미는 애정전기가 창작된 배경으로서 『윤청시권』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전기소설의 창작배경에 대한 구체적 상상에 도움을 주는 논의였다(김경미, 「17세기 문사와 기녀의 사랑의 노트, 『尹晴詩卷』: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 『고전문학연구』 64, 한국고전문학회, 2023, 189~218쪽).

와 만나는 여성들과의 여덟 가지 에피소드들은 각각 독립된 전기 작품 한 편을 구성할 만한 것들이었다. 남장을 하고 양소유를 만나는 적경홍이나 여장을 하고 정경패를 만나는 양소유, 늑혼 상황에 놓인 이소화와 양소유가 통소와 청학을 매개로 만나는 대목, 양류사로 만나서 전쟁 때문에 헤어진 진채봉과 양소유, 여협 심요연이나 용녀 백능과 이야기 모두 전기적 모티프였다. 하지만 『구운몽』은 애정전기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별이나 사별,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주요 서사를 이루었던 것을, 양소유가 여덟 부인을 만나는 긴 서사에 종속된 모티프로 전유하면서 각각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볍게 즐길 수 있게 재해석하였다.

중요한 것은 여덟 가지의 만나고 이별하는 경우의 수는 당대 현실 경험에서 유추·상상한 것이 아니라 전기소설에 있었던 모티프를 독서를 통해 수용하여 통속적으로 변주했다는 점이다.²⁴

만인 중군하던 **목**년이 아니면 이 합을 도적하는 **홍선**이라²⁵(서울대본 3권 1a)

“이 곡피 슈부의도 네는 업더니 **과인이 못줄이 경하의 석집** **갓더니 옥을 보거늘** 전당 아이 경양의 가 싸홈 이기고 녀즈를 드려오니 궁둥 사름이 글을 민드라 **전당과진악과 귀주환궁악** 이라 하여 잇다감 궁둥 잔츠의 쓰더니²⁶(서울대본 3권 15a)“

심요연 모티프에서 목란(木蘭)과 홍선(紅線)의 이름을 드러내고 백능과 모티프에서 <유의전(柳毅傳)>의 설정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서술자는 자신의 독서 이력을 분명하게 밝힌다.²⁷ 작가는 자신이 읽었던 작품을 노

24 전기소설로서 「유의전」, 「곽소옥전」, 「왕시봉기유기」를 비교할 수 있으며, 『삼국지연의』의 칠보시도 참조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목록을 드러낸 것으로 비교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5 당 전기소설 「홍선전」의 홍선과 「목란사」의 목란이다.
26 당 전기소설 「유의전(柳毅傳)」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다. 밑줄 친 악곡명도 참조한 작품에서 가져온 것이다. 을사본에는 유진군(柳眞君)이 직접 거론된다.
27 정길수, 「전기소설의 전통과 구운몽」, 『한국한문학회』 30, 한국한문학회, 2002, 353~379쪽; 김도환, 「고전소설 자객화소의 창작경로」, 『고소

출하면서 스스로 재미로 책을 읽는 ‘호사자’이며 유희적 시선으로 독서목록을 수용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의 독서 이력을 창작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비평적 문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호사자들의 비평적 역량과 책을 읽는 습관은 그들의 학습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았다.²⁸

그 일은 심히 기이하였으나 역사서를 살펴보니 다 허망한 것이었다. 양소는 대업 2년에 죽었으니 그가 죽지 않았을 때는 태종이 겨우 6~7세였고, 비록 그에게 영웅의 자질이 있었더라도 어찌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하물며 신요가 대업 초에 내외의 벼슬을 두루 지내고, 11년에 이르러 비로소 태원유수가 되었으니 양소가 살아있을 때에는 신요가 아직 태원주장이 되지 못했었다. 또한 이른바 해적이 수천 척의 배로 들어와 부여국을 멸했다고 하는 것 또한 역사서에 보이지 않으니 이는 다 **호사자들이 꾸며낸 것**인데, 보는 이들이 간혹 깨닫지 못하므로 대강 기록해둔다.²⁹

위의 예시는 『태평광기』 <규염객전(虬髯客傳)>에 대한 장유(張維)의 비평이다. 역사와 엮어 쓴 전기적 이야기에 대해 고증하며 비판하고 ‘호사자’들이 꾸며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비평은 그들이 학습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지만, 논의의 대상이 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런 공부하는 방법으로 소설을 대한 것과 달리 『구운몽』의 ‘작가’는 유희적 서술자의 시선으로 모티프를 재해석했다.

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111~143쪽 참조. 정길수는 전기소설의 모티프를 구운몽에서 어떻게 변용했는지 논했고 통속적 창작 의식을 밝혔다. 그는 서사적 측면에서 애정전기의 미의식과 정반대에 놓여있는 구운몽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만 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8 합사·비점·논평·결말변형 등 「운영전」에 대한 적극적 독서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이길환·김영건, 「조선 후기 傳奇小說 향유 양상에 대한 고찰 1: 「雲英傳」 한문필사본 검토를 중심으로」, 『한문학회』 46, 우리한문학회, 2022, 165~225쪽.
29 무악고소설연구회편, 앞의 책, 태학사, 2001, 208~209쪽.

여덟 명의 여성들을 만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남성 입장의 성적 오디세이를 경험하는 문화적 형식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³⁰ 그럼에도 불교적·도교적·유교적 외피를 입혀 격조를 갖추고자 시도했다.³¹ 『구운몽』은 전기소설 독서 지평에 기원을 두고 있었으나 통속적 재해석을 통해 독자의 경계를 확장하는 기점을 만들었다.

4. 대중적 확산

4.1. 이중문자·세책·출판

이중문자로 유통되거나 출판을 통해 책으로 출간되는 것은 독자를 확대하는 미디어의 작동 방식이었다. 『구운몽』은 일찌감치 한글본과 한문본의 이중 문자 텍스트로 자리 잡았다. 번역과 출판은 호사자들의 소문이나 명분보다 적극적으로 독자 집단을 확장하는 방법이었고 기술 매체의 도움을 받아 소설이 본격적으로 경제 부문에 진입한 계기였다. 『구운몽』에 대해서 창작 당시 원본의 문자 문제는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³² 하지만 시간적 선후 관계와 원전 논의 못지않게 이중 문자로 읽혔다는 것이 의미 있는 현상이었다. 『구운몽』이 창작과 거의 동시에 이중 문자로 향유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자를 쓰는 독자층들에게 모두 확대받았다.

패설에 구운몽이 있으니, 곧 서포가 지은 것이다. 대체적인 뜻은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이라는 것이니, 어머니의 근심, 걱정을 위로하고자 함이었다. **그 책이 부녀자들 사이에 성행하였는데,** 나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익히 들었다. 불가에 빗대어 말하였으나 그 가운데 초사 이소의 남긴 뜻이 많다고 한다.(『三官記』耳)³³

이 기록은 여성이 독자가 되었다는 것과 『구운몽』이 이미 17세기말에 국문으로 읽혔다는 것을 알려준다.³⁴ 1725년에 이미 을사본이 나주의 관판본(官版本)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³⁵ 그보다 이른 시기에 한문본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17세기의 다수 전기소설이 필사본이나 선집(選集)의 형태로 사대부들 안에서 읽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구운몽』의 이중 문자 유통은 일반적 전기소설과 다른 경로로 독자를 만났다는 뜻이었다.

번역은 이야기가 특정 집단 안에서만 읽히는 데 머물지 않고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독자층이 탄생하는데 일조하였다. 문자의 경계를 지우고 출판 기술과 상업 유통이 결합되면서 독자집단의 확대는 가속화되었다. 세책 유통 방식으로 소설 독서를 경제적 행위로 포섭하였고 조선 후기 사회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이윤을 꾀했던 상인들은 소설을 판각하여 방각본 상품으로 만들었다.

『구운몽』은 한문으로 판각된 을사본과 계해본이 있어서 표준화를 이루었고³⁶, 같은 판을 보관하고 수요에 따라

30 폴리아모리(polyamory)의 상상력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모티프인 것 같다. 현대의 대중적 콘텐츠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한 폴리아모리, 여성을 중심으로 한 폴리아모리가 여전히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모티프이다.

31 『구운몽』이 다른 통속소설과 다른 점이지만 그렇다고 철학적 수준을 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철학 소설이라기보다는 통속성의 스펙트럼 내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주제 논의는 『구운몽』 연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부분이었다. 그러나 힘을 빼고 서사 전반을 보면 쾌락의 시간이 지난 후 자기 삶을 관조하는 인물형 정도로 의미 부여하는 것이 정당할 것 같다. 그런 인물의 형상만으로도 다른 통속소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를 말할 수 있다.

32 이 글의 문제의식은 창작 문자 논쟁에 있지 않다. 전기소설의 문법에 익숙한 작가에 대한 논의는 창작문자가 무엇인지 확정하는 논의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33 무악고소설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I』, 이회, 2005, 135~136쪽.

34 이윤석, 「구운몽의 작자와 원본 재론」, 『동방학지』 19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0, 257~393쪽.

35 이윤석, 「구운몽 을사본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92, 한국서지학회, 2022, 60~61쪽. 을사본은 관판이었으나 후대 상인의 손에 들어가 20세기 초까지 판매용으로 찍어냈다는 것은 관판과 방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완판본 『구운몽』에 을사본의 흔적이 있다면 이런 지역적 연구도 고려할 만하다.

36 출판본은 표준화가 된 텍스트가 되어 다른 이본에 비해 우위에서는 경향이 있다. 『구운몽』과 같이 한문본이 출판을 선점한 경우는 한글본에도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 상업출판용 텍스트를 만드는 데에도 을사본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적었다.³⁷ 반면 세책이나 경판본 완판본 등 한글 텍스트는 서사에 대해서 소소한 변화들을 만들어냈다.³⁸ 독자들의 선호를 예상하고 서사에 변화를 가하거나 영세한 자본 상황을 반영하듯 판목의 수를 줄이고, 지역 독자의 선호에 맞게 내용에 변화를 꾀했다. 한글 텍스트는 시정의 요구를 가늠해서 전략적으로 반응했으나 영리적 판단이 최우선 요인이었다.

4.2. 편집자의 서사전략

시정에 수용된 『구운몽』은 서사의 큰 줄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서술 문장을 생략하거나 부연하였고 또 판목의 수를 조정하면서 독서를 위한 텍스트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서사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변형을 시도하는 감상자나 주석자라기보다 시정의 상식적 선호에 따라 편집하는 상인에 가까웠다.³⁹ 그 결과, 시정 독자들의 선호에 맞춘 서사에 대한 편집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동양문고본 세책 『구운몽』의 ‘남성주인공이 폄하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경향, 처와 첩에 대한 위계적 시선을 견지하려는 경향, 가족이나 가문과 관련한 서사를 중시하는 경향’ 등의

기준으로⁴⁰ 서사 변모를 분석하였다. 분명한 편집자의 서사적 개입이 있었고 ‘생산자와 수용자는 가부장제를 긍정’한다고 논하였다.⁴¹ 타당한 의견이지만 좀 더 정확한 보완 서술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는 의식적 지향성이라기보다 편집자가 내린 시장의 평균적 감수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승상이 더욱 감창하야 니르디 니 어이 춘낭을 저브리리오
 흥물며 쇼저의 유명이 이러하니 비록 덕녀로 처하고 복비로
 첩 삼아도 춘낭은 잇디 아니히리라(서울대본 권지삼 53a)

승상이 더욱 창감하여 탄왈 춘낭을 저바리리오 허물며 소
 제의 유명이 이러듯 하니 니 비록 우러궁소아로 처를 삼고 직
 녀로 첩을 삼아도 밍세하여 운낭을 잇지 아니리라 히더라 **날
 이 저물디 승상이 밤이 깊도록 천지구치를 한담하다가 축을 떨
 히고 금니의 나아가니 은정이 식로와 원앙이 녹슈를 맛남 갖디
 라**(동양문고본 6책 8b)⁴²

동양문고본에서 일어난 부연은 서사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았고, 정경패의 죽음을 접한 후 양소유가 보이는 반응으로도 썩 타당해 보이지 않았다. 가춘운과 함방하는 장면은 세책본 편집자가 판단할 때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선정적 모티프였을 것이다. 사실 ‘가부장제의 강화’나 ‘영웅성 강화’ ‘섹슈얼리티 첨가’ 등은 모두 통속적 지향성

37 강명관은 주자소 교서관을 제외하고 서적인쇄는 지방의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절대 다수는 관찰사의 판단과 주변 사인들의 요청에 따라 인쇄했다고 보았다.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천년의상상, 2014, 224; 오영균, 「책의 문화사에서 보는 책의 나라 조선」, 『장서각』 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6~35쪽에서는 조선에서 판판과 상업출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논하였다. 외부의 시선에서 가능한 판단이지만 조선 내에서 볼 때는 분명 구분되는 성격의 수요 공급 체계였다.

38 경판본은 단 32장본, 단 29장본이 있고(이창현,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 소설 연구」, 『한국문화』 21,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79쪽), 완판본은 상하권 105장본으로 남아 있다(조희웅, 『고전소설연구보정』, 박이정, 2006, 79~80쪽).

39 『구운몽』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이 없는 시대에 시정에서 작품에 대한 지속적 권한은 작가에게도 상인에게도 없었다. 상인들은 적절한 분량을 위해 문장이나 장면을 생략하는 일을 했다. 방각본 업자들에게 매우 분명히 보이는 편집의 태도는 많은 이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바이고, 방각본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인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이는 편집자들이 작가와 다른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40 동양문고 세책본의 특징을 정리한 선행 연구의 결론에 대해 재론이 필요하다. 논의를 위해 제시한 동양문고본 문장 근거들이 을사본에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시중의 세책 유통본을 만들 때 한글본인 서울대본이 아니라 한문본 을사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 완판본의 특징으로 논한 것들도 을사본에서 발견되는 만큼 적어도 구운몽에 대해서는 판각된 을사본이 시정에 유통된 한글본의 주요 번역 대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뤄두기로 한다.

41 엄태웅, 「동양문고본 세책 『구운몽』의 서사적 지향과 주제적 특징」,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40, 한국어문화국제학술포럼, 2018, 335~382쪽.

42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구운몽』 동양문고본 7권7책. <http://kostma.korea.ac.kr/>.

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가부장제나 유교윤리와 다르지 않았고 쾌락적 욕망에 해당되는 섹슈얼리티나 군담이었다. 편집자는 서사적 판단으로 변형을 시도하지 않으며 텍스트 외부의 독자가 좋아할 법한 모티프를 부연하고자 했다. 현재 대중 지향성 서사가 필수적으로 보유하는 모티프와 다르지 않다.

『구운몽』 경판본이나 완판본에서 일어난 변화는 독자보다 초기 자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각본의 서사 편집 기준은 완판본이든 경판본이든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³

너 서찰을 보면 필연 뉴의홀 거시니 뉴의호여 잊지 말나
(경판 17b)

내 편지를 부치면 일정 너를 위하야 어진 비필을 구하리라
하고, 편지를 주시거늘 심이 횡장을 츠려 흐직하고 가니라(완판 20a)

내 편지를 보시면 필연 정성으로 지로홀 거시니 이 일은
네 모르미 뉴의호라 **칭이 화음현 진시 너즈의 말을 하고 슬픈
빛티 만켜늘 뉴시 차탄호여 곁오티 비록 아름다오나 인연이 업
스니 죽었기 쉽고 사라셔도 만날 길이 업스니 넘너 쓴쳐버리
고 아름다운 인연을 미자 나의 버라를 위로호라**(서울대본 권1
29b-30a)

서울대본과 완판본이 다른 지점은 경판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완판본의 특성이라고 보았는데 방각본이 공히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인다. 완판본에서 부연된 사례로 제시된 대목은 조금 더 고민스럽다. 앞선 연구에서 사례로 든 대목 하나를 가져와 보았다.

43 엄태웅, 「완판본 『구운몽』의 인물 형상과 주제 의식」, 『어문논집』 72, 민족어문학회, 2014, 111~163쪽; 엄태웅, 「경판본 『구운몽』에 나타난 비일상적 면모의 변모 양상과 의미」, 『日本學研究』 47,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6, 49~75쪽에서 경판본과 완판본 『구운몽』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이 왈 소자의 즈친이 나히 만호신지라 쇼질의 나히 십늑 세되오티 비필을 정치 못호여 효양을 일로지 못호오니 원컨대 숙모임은 십분 넘너호읍쇼셔 하직하고 가니라 이적에 과거 날이 각각와시디 혼쳐를 정치 못호엇기에 과거의 뜻이 업서 다시 즈청관의 가니(완판본 28b-29a)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존본 을사본에서도 보유한 서사였다. 다른 예시로 제시된 두 대목 모두 마찬가지였다.

楊生曰 小姪親老家貧 年近二十 而身處僻鄉 未能擇配 方當喜懼之日 反貽衣食之憂 誠孝莫展 歉愧深切 今拜叔母 眷念至斯 感荷良深矣 卽拜謝而退 時科日將迫 而自聞指婚之諾 稍弛求名之心 數日後 復往觀中(을사본 30a-30b)⁴⁴

노존본보다 을사본(계해본)이 완판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편이 확률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방각본 편집자들도 기계적 축약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한문본을 참조하며 새로운 유통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⁴⁵ 또한 시정 편집자들의 편집 기준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완판본에서 상대적으로 구어적 문장에 가깝게 재서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⁴⁶

영웅적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방각본과 활판본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현씨양옹쌍린기」와 같은 긴 작품에서 「현수문전」이, 「옥루몽」에서 「강남홍전」이, 「봉신연의」에서 「강태공전」이 파생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활판본만 있는 작품

44 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 일지사, 1988(3쇄), 313쪽, 을사본 영인본.
45 방각본 「강태공전」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한문본을 참조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형예, 「강태공전: 초역(抄譯) 현상을 통해 본 방각본 소설시장의 일면」, 『열상고전연구』 57, 열상고전연구회, 2017, 187~220쪽. 을사본과 같이 한문본이지만 ‘판각’되었기 때문에 시정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편집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문본을 참조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 비교 분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46 이준환, 「완판본 한글 고소설 구운몽의 언어적 양상」, 『어문론총』 87,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57~87쪽에서 완판본 구운몽이 경판본과 비교하여 대화의 비중이 높고 문장 길이가 길지만 구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들에도 영웅소설들이 다수 양산된 것을 보면 그 시기 통속 소설을 만드는 시정의 공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편집자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투자로 독자들의 이해나 선호에 맞춘 상품을 만들었다. 『구운몽』의 한글본 유통에서 시정 편집자들은 매우 적은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영세한 처지였으나 나름의 경제적 판단을 기준으로 독자와 교감하고 있었다.⁴⁸

경판도 적은 영리에 민감하고, 투자를 줄여서 이윤을 보려는 영세한 시장이었지만, 완판은 그보다도 적은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판본보다 적은 수의 작품들이 판각되었고 그것도 대중적 선호가 높은 작품들이 대상이었다는 것을 볼 때 서울의 유행에 종속되어 있는 시장으로 보인다.⁴⁹

5. 결론

한문을 주로 쓰는 사대부들은 오락적 독서를 할 때 자칭 타칭 호사자가 되었다. 작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창작하고 독서하는 공동체가 『구운몽』 창작에서 주요한 배경이었다. 새로운 작품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해서 읽고 기록하고 의견을 내고 출판까지 감행하는 이들은 적극적 독서집단지자 비평가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전기소설 독서기록에 나타난 독자들의 독서 방식은 그

47 고전소설을 대개 유형화된 영웅소설이라고 인식하는 대중의 시각은 19세기 말 형성되었던 통속소설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다.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대중의 편견을 수정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48 완판본 『구운몽』은 앞뒤 총 30장, 판 수로는 15장의 보판(補板)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판은 행서로 보판은 해서로 서로 다른 시기에 판각된 것이다. 전면 개판이 아닌 것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려는 영세한 출판시장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49 세책본과 방각본의 목록을 비교해보면 조사된 세책본 목록 154편 대비 방각본 목록은 60편 정도이며 새로운 작품은 거의 없다. 이로 보면, 방각본 시장이 창작보다 판매에 경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경판본 60여 편의 목록 대비 완판본은 19편 정도이고 거의 모두 경판본이 있는 작품이었다. 이윤석, 「세책과 방각본 한글소설 목록」, 『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299~307쪽.

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경험이나 문헌에 근거한 고증의 태도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구운몽』의 작가는 전기소설 독서의 이력을 서사 속에 드러내면서 모티프를 변주하며 유희적 거리감을 유지했고, 인생에 대한 성찰로 마무리하면서 품격도 놓치지 않는 소설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냈다.

『구운몽』은 이중 문자로 동시대에 읽혔고 유희적 서사는 독자층을 넓히는데 결정적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문본은 관판으로 유통되면서 비교적 고정된 표준화 양상을 보였으나 한글본은 상업유통을 통해 시정의 선호와 영리를 고려한 서사적 편집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7세기 서사적 새로움을 추구했던 창작의 역량이 그 이후 소설의 장에서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수그러들었고, 유형화된 장르 관습을 추수했던 방향과도 다르지 않았다.

『구운몽』 창작과 유통에 대한 이해는 독자와 소설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편집자들의 역할을 의식화하는 과정이었다. 작가의 유희적 서술 태도는 독자집단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고, 소문과 명분, 번역으로 독자집단을 키워 나갔다. 독자들을 의식하는 편집 경향은 영리적 소설시장에서 감지했던 통속적 기준에 수렴하고 있었다. 상업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출판 미디어가 포섭했던 독자의 크기는 이전과 달랐다. ‘다른 이야기’의 창작은⁵⁰ 분명 독자 집단을 확장하는데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작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창안했다고 하더라도 기술 매체, 상업 유통과 결합되지 않았다면 작은 독자 집단의 오락에 불과했을 것이다. 『구운몽』 독자집단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번역과 출판, 상업 유통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입소문에 불과했던 독서 집단의 이야기 공유 방식이 기술 미디어를 통해 대중독자를 확보하는 길을 열었다. 이야기의 공유 과정에서 편집자들이 주도한 변화들은 서사적 측면에서는 오리지널리티

50 ‘다른 이야기’는 동질적 독자집단을 넘어설 수 있는 ‘서사적 다름’에 의미를 부여한 수사이다. 이 글에서는 『구운몽』 작가가 기존 독자집단의 이야기 경험 태도와 다른 스탠스를 취한 부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를 훼손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오락적 독서의 장에서 오리지널리티는 전혀 중요한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구운몽』의 이력으로 볼 때, 여러 집단이 포섭되는 독자 확장의 과정, 서사와 기술매체의 결합 그리고 영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이야기를 공유하는 대중독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와 같이, 17세기에서 열었던 통속 소설 독서의 장에서 찾을 수 있었던 ‘작가’와 ‘동질적 독서집단’이 점차 변모하여 19세기 소설 독서의 장에 이르러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편집자와 복합적 독자집단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현상에 『구운몽』이 놓여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구운몽 경판 32장본 고려서림 영인본(1986)
 구운몽 완판상하 105장본 고려서림 영인본(1986) 다가서포(1916)
 구운몽 동양문고본 (해외한국학자료센터 kostma.korea.ac.kr)
 구운몽 서울대본 4권 4책 (규장각 古3350-91-v.1-4)
 구운몽 을사본(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 일지사, 1977. 정규복, 부록 영인본)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한국고전번역, DBdb.itkc.or.kr

2. 단행본 및 논문

- D. 부세, 「구운몽 저작언어변증」, 『한국학보』 68, 일지사, 1992.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천년의상상, 2014.
 강상순, 「구운몽의 상상적 형식과 욕망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구우, 정용수역, 『전등신화』,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김경미, 「17세기 문사와 기녀의 사랑의 노트, 『尹晴詩卷』: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창작배경」, 『고전문학연구』 64, 한국고전문학회, 2023.
 김도환, 「고전소설 자객화소의 창작경로」,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김동욱, 「구운몽 원본 탐색의 가능성 고찰」,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김병국, 「구운몽의 연구사」,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김수영, 「영조(英祖)의 소설 애호와 그 의의」, 『인문논총』 73(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태학사, 2001.
 _____,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Ⅱ』, 이회, 2005.
 신재홍, 「어머니 독자와 김만중의 소설 창작」,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양승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연구학회, 2004.
 엄태웅, 「경판본 『구운몽』에 나타난 비밀상적 면모의 변모 양상과 의미」, 『日本學研究』 47, 단국대일본연구소, 2016.
 _____, 「동양문고본 세책 『구운몽』의 서사적 지향과 주제적 특징」,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40(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8.
 _____, 「완판본 『구운몽』의 인물 형상과 주제 의식」, 『어문논집』 72, 민족어문학회, 2014.
 오영균, 「책의 문화사에서 보는 책의 나라 조선」, 『장서각』 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이길환·김영건, 「조선 후기 傳奇小說 향유 양상에 대한 고찰 1: 『雲英傳』 한문필사본 검토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46, 우리한문학회, 2022.
 이윤석, 「구운몽 을사본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92, 한국서지학회, 2022.
 _____, 「구운몽의 작자와 원본 재론」, 『동방학지』 190,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20.
 _____, 「문학사 기술을 위한 한글고소설 목록」, 『근대서지』 28, 근대서지학회, 2023.
 _____, 『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이주영, 「구운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문학연구』, 국문학회, 2003.
 이준환, 「완판본 한글 고소설 구운몽의 언어적 양상」, 『어문논총』 87,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장효현, 「구운몽의 주제와 그 수용사에 대한 연구」,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정길수, 「구운몽 정본 구성의 방법과 실제」,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_____, 「구운몽의 독자는 누구인가」,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_____, 「전기소설의 전통과 『구운몽』」,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지연숙, 「구운몽의 텍스트: 서울대본·노준B본·노준A본의 위상에 대해」, 『장편소

결과여와전』, 보고사, 2003.
한국고소설학회 편저, 『한국고소설강의』, 돌베개, 2019.

Abstract**The Problem of the Narrative and Media
in <Goonmong>**

The Process of Enlargement of Popular Read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Joo, Hyung-Ye |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ed to see a case of changing the field of novel reading by discussing the conditions and timing differences in which “Guneunmong” was able to expand its readers’ size in the entertainment reading environment of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narrative signs and related materials.

Mongyurok(夢遊錄), Yadam(野談), Chinese novel, and romance were on the reading list of the fun-seekers who read recreational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y were readers and writers, and sometimes published. The author of “Goonmong” chose a strategy to reinforce the entertainment of the narrative by using a playful narrator in the reading topography of the romance. The readers of “Goonmong” talked about the rumors about the work as a light topic, and crossed the gender boundaries of the reader with the justification of creation and reading “For My Mother.” Rumors and justifications produced a primary media effect that broadened the reader.

“Goonmong”, which is placed in the media context of bilingual, engraving, and commercial distribution, reinforced the popularity of the market by reflecting the average sensitivity shared in the chapter of popular novels by omitting and supplementing the narrative. The Chinese text was engraved early on and had a standardized narrative, and since then, the narrative of the printed version of 乙巳 has served as a very influential reference text in the market. The Korean version of “Goonmong” was combined with the commercial distribution media of rental book(貫冊) and commercial(坊刻) to make a partial change in the narrative according to the common sense of the consumer readers. Although the range of narrative transformation or the choice of sentence expression chosen by the editors was not the same depending on the medium, the criteria for editing converged on the common sense and the preference of the market. Editors prioritized the commercial expectation of making a profit by aligning with the naturalized popular sensibility rather than having an ideology for a specific ethics or a will for patriarchy.

Keywords writers, readers, editors, topics, justifications, fun-seekers, double letters, rental book, publication, narrative, popularity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